

김일엽(金一葉)의 여성성 고찰

盧美林*

초 록

김일엽은 한국 최초의 여류시인이다. 우연히 일본최초의 여류직업소설가인 히구치이치요가 죽은 1896년에 태어났다. 일엽이라는 호도 그녀의 히구치이치요에서 따온 것이다.

일엽이 활동한 시대는 바로 남성 파시즘에 의한 가부장제가 한창 팽배해 있던 구한말과 일본제국주의의 점령기이었다. 일엽은 그 당시 이 세상을 휩쓸고 있었던 가부장제에 의한 남근숭배사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항거한, 시대를 앞서간 여성해방운동 작가이었다.

그녀의 여성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남녀 차이의 이론적 배경과 페미니즘에서 분석한 여성성 및 가부장제 하에서 규정된 여성성을 고찰하고, 일엽의 새로운 여성성을 그녀의 남성편력과 글쓰기를 통하여 제시해 보았다. 실제 수명의 남자와 결혼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세상을 경악케 하리만큼 대담한 글쓰기로써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등, 일엽의 여성성은 유토피아적이면서도 솔직하고 직선적인, 여성해방운동가로서의 새로운 여성성이다.

주제어 : 여성해방운동, 글쓰기, 여성성,

*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수료

I. 서 언

구한말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다간 한국 최초의 여류시인이며 여성해방운동 문학 작가인 김일엽(金一葉, 1896~1971)—그녀는 신체시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도 1년이나 더 빠른 1907년(그녀 나이 11살 때)에 이미 『동생의 죽음』이라는 시를 쓴 바 있어서 사실상 우리 나라 신시의 지평을 연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 김일엽(이하, 일엽이라 부름)이 많은 화제를 뿌리고 속계32년, 불계43년의 이 세상을 하직한지도 어언 33성상의 세월이 흘렀다. 일엽은 과연 우리에게 지혜의 꽃가루를 날라 준 프쉬케의 나비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아방가르드 적인 삶으로 하여, 나비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갖추었으나 충분조건은 구비하지 못한 태극나방이에 지나지 않았을까? 그녀의 남성편력과 글쓰기 속에 내재해 있는 여성성을 고찰해봄으로써 오늘날 여성해방운동문학의 한 텍스트로 삼고자한다.

II. 여성성의 의미

1. 차이의 이론적 배경과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여성성

전세기까지 팽배해온 구조주의적 발상에 따르면, 이 사회는 크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있다. 피지배계층은 당연히 지배계층에 예속되고 종속되게 마련이다. 그것을 성의 측면에서 보건대, 극히 최근까지 이 세계는 가부장제의 남성파시즘이 성행해온 남성중심주의의 세계이었다. 여성은 원시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기를 억압받아오는 등, 피지배계층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결국은 “성의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압박하여 왔다. 그러나, 애초에 여성들은 자신이 왜 차별을 받는 지조차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18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몇몇

진보적 여성들의 노력으로 출현한 여성해방운동(Women's Emancipation Movement)이 그 이론적 배경을 폭로하기까지에는...

프랑스 시민 혁명이 불씨가 되어 일어난 여성해방운동은 이른 바 계몽주의 시대 또는 이성의 시대에 개발된 이론들에 의하여 실현되었다.¹⁾ 모든 국민은 통치권이 개입하지 못하는 어떤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지적 생각은 『미국독립선언서』(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와 『프랑스인권선언서』(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1789)의 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한 것으로, 이 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천부인권설을 발전시키고 강조한 바로 그 남성 이론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세핀 도노번, p.14) 남성 자유이론가들의 가설은, 자연권을 지닌다는 것은 가족의 성원을 소유한 남성의 특성이라는 것이다.(조세핀 도노번, p.20) 기본적인 천부인권설을 여성의 경우에 적용한 가장 드라마틱한 초기의 시도는,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1815~1902)에 의해서 처음으로 초안되어 뉴욕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에서 발표된 『감정선언』(Declaration of Sentiments, 1848년 7월 19~20일)이었다.(조세핀 도노번, p.21) 그 내용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조세핀 도노번, p.22)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反) 페미니스트인 루소(J.J.Rousseau, 1712~1778)를 정신적 스승으로 성장해 온 메어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²⁾는 루소의 여성에 관한 절름발이 판단에 반대하여 『여성권리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1792년 1월 3일,³⁾를 완성시

1)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 이월영 옮김, 페미니즘 이론, 서울 : 문예출판사, 1997, p.14

2)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 이월영 옮김, 페미니즘 이론, 서울 : 문예출판사, 1997, p.13

3) 리처드 에번스 지음, 정현백 외 옮김, 페미니스트,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7, pp.20~

켰는데, 이는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사상 최초의 주요 업적이다. 거기에서 그녀는 적절한 교육, 즉 비판적 사고의 적절한 트레이닝에 의하여 페미니즘도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페미니즘이란 지적 활동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양성 평등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신조”라는 통상적 의미로 정의된다. 이 용어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서부터로, 1890년대의 “여성주의”(Womanism)라는 용어 대신으로서 미국(1910년대)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말은 남성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페미니티 또는 페미니니티라고 한다. 이 여성성의 다양성으로서 포먼 (Ann Foreman)은 수동성, 육체적 섬세감, 시각적 매력, 천부적 머조히즘을 강조한다.(조세핀 도노번, p.147) 보봐르(Simone de Beauvoir, 1908~2004)에 의하여 일종의 ‘타자’(an other)로서 구상화되는 이 용어는 선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성을 말한다.(조세핀 도노번, p.147)

소외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그리고 의미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하는 근대적 체험을 가리키는데,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근대적 철학자는 헤겔이었다. 그 뒤 이 소외의 개념은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이론의 핵심을 이루게 되고, 1844년의 『경제학논고』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의 근본 요인으로는 산업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노동의 소외로 단정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든 최종의 생산품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그들 자신은 생산기계의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수단’에 의해서라고 하였다.(조세핀 도노번, p.135)

일엽의 경우, 글쓰기⁴⁾라는 평생의 작업은, 그녀로하여금 가부장제하의

21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고 쓴 이 책은 교육용 소책자로서 계몽주의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다.

4) 여기에서의 글쓰기는 데리다가 의미하는 에크리튀르(écriture)의 의미로서 “쓰여진 모든 글”을 뜻한다.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1990),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서울: 창작과비평사, p.228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실천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텔라·코스타(Mariarosa Della Costa)는『여성과 공동사회의 전복』(Women and Subversion of Community, 1972)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이 가정에서 고립되어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이 소외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공장노동은 그것이 집단적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쪽보다는 소외도가 낮다고 보았다. 가사는 그것이 단순, 세세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야말로 소외되어, 가사 이외의 일에는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바르는 타자로서의 여성의 아이덴티티와 여성의 근본적 소외는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육체—특히 여성의 생식능력—에 기인하고, 부분적으로는 임신과 육아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된 역사 이전의 노동분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그것이 여성의 육체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고, 창조적 대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그녀들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성은 생득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성의 변별성에 관해서 코비나(Gina Covina)는 논문, 『장밋빛 우뇌의 축신, 환신』(Rosy Right Brain's Exorcism/Innovation)속에서 “우뇌적 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성의 변별성에 관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거론하였다.(조세핀 도노번, p.307) 첫째, 남성과 여성은 선사시대에는 각자 다른 직무로 인하여 서로 달랐다. 즉, 여성은 어린이를 키우고, 농작물을 심고 보살피며,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기도문을 읽는 등, 생명적인 일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남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목할만한 사이클(월경)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수렵을 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살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은 각자 좌우의 뇌가 틀리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우뇌적이다. 좌뇌는 분석적이고 연속적인 것을, 우뇌는 확산된 불연속방식에 각자 다른 많은 현상을 동시에 통합하고, 독립된 정보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는 체험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코비나에 의하면, 좌뇌적 사고는 그 특징상 남성적이다. 그것은 초점을 인간적인, 또는 감정적인 사고를 짜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좁게

맞추어 놓고 있어서, 남성이기 때문해야말로 사람, 동물, 식물, 자연작용을 자책감 없이 죽인다. 하여, 이 같은 사고는 남성이 지구상의 모든 제도 속에 내재해 있는 도덕률을 무시하고, 남성 스스로의 계획을 강요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계급 시스템이며, 가정에서는 가부장제인 것이다. 이 부권제적 좌뇌적 세계는 보편적으로 우뇌적 좌수양식을 ‘타자’로서 낙인 하여 왔다. 그러나, 부권제적 좌뇌적 운용방법은 파계적이고, 죽음 지향의 것이므로, 생의 긍정적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뇌가 허용된 복합적 견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총체적 비전 뿐으로서, 이와 같은 총체론은 바로 여성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즉, 부권제적 질서는 죽음 지향적이고 여성의 질서는 삶확신적인 것이다.(조세핀 도노번, p.211) 과연 일엽의 여성성을 고찰하여보건대, 우뇌적 사고방식에 의한 삶확신적인 면모가 일생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이면에도 바로 이러한 차이를 갖는 뇌의 사고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가부장제에서의 여성성

페미니즘 중에서도 가장 논쟁의 요소가 되는 개념이며, 모든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개념인 가부장개념이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방어적 메카니즘,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부장제라고 하는 용어는 페미니스트들이 쓰기 이전부터 종족에 관한 가장의 권력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회이론으로 발전한 이래로,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용어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 제2의 물결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그 개념의 정치적 의미가 중시되고 변형되어 분석되어져왔다. 여기에는 남성 파시즘이 한 몫 하게 된다.

파시즘이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부에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

사실에 둔감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파시즘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여성은 왜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였다.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 받는 일이며,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열등’이라는 레텔이 붙여지고, 남성의 모습은 실물의 두 배 크기로 비추어진다.⁵⁾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거세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의 관점에서는 여성을 본질적으로 종족의 양육자이자 열매 맺는 자이며 잠재적으로 파스한 가슴을 가진 피조물로 보지만, 그보다는 흔히 자궁을 가진 변덕스러운 아이이며 남성의 기관과 남성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영원히 애도하는 자로 본다.⁶⁾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남성은 정(正)이고 여자는 부(否)이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오직 소모품이자 아웃사이드일 뿐이다. 남성의 젠더 아이덴티티의 핵은 부정적으로 ‘여자가 아닌 것’으로서 발달하여, 남성인 것은 인간이고 여성인 것은 인간의 정상체로부터 보아 일종의 일탈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성적이라는 것은 정신 분열증 적이라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여성들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여성성을 거부하면 종종 정신과에 감금된다. 그들이 여성성을 회복할 때에야 석방되거나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간주된다.(필리스 체슬러, p.182)

이 남성파시즘적인 가부장제의 대표적 예로서, 11세기에서 13세기의 중세 유럽을 들 수 있다. 사라센 제국의 이슬람교도들과, 구 동로마 그리스정교도와 연합한 서유럽 로마 카톨릭 교도들간의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유럽의 남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성에게 정조대를 채워, 열쇠를 갖고 출정했다. 뿐만 아니라 문예부흥을 거친 16,7세기의 유럽에서는 신앙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남성파시즘적 쇼비니즘⁷⁾에 위협을 주는 50만 여성을 ‘마녀’로 낙인찍어 산채로 태워 죽이는 마녀 화형식을 거행했다.

5) 織田元子, フェミニズム批評, 東京:勁草書房, 1990, p.17

6) 필리스 체슬러 지음, 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서울 : 여성신문사, 2000, p.165

7) 盲目的 愛國心, 排外主義-역주

쥘 미슐레는 『악마주의와 마법 : 중세 미신에 관한 연구』(Satanism and Witchcraft : A Study in Medieval Superstition)에서 대다수 마녀들이 산파들이었고 의사였음을 암시한다. 진통제, 임신중절, 약초와 “신앙 치료”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교회의 반과학적이고 반성적이고 반여성적인 교리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마녀로 된 것이었다.(필리스 체슬리, p.192) 중동과 아프리카의 토속민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음핵절제와 음부봉쇄를 의무시하는 여성할례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⁸⁾, 만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가르치는 불교가 일어난 인도에서는 남편의 장례식 장작더미에 미망인이 스스로 몸을 던져야 하는 순사의식(殉死)이 있었으며, 지금은 모택동 덕분에 완전한 남녀 평등(半邊天)을 이룬 중국에서는 과거, 여자의 발을 피나도록 짝 싸매는 전족(纏足)을 행하여 여자의 행동을 구속하였다. 일본에서는 폭군 남편을 정당화하는 남성절대주의(亭主關白)와 함께 여성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오하구로”(お歯黒)라 하여 기혼여성, 미혼여성을 이빨 색으로 구별시킴으로써 미스, 미세스로 차별화한 서양의 경우를 능가하였다. 그에 비하면 조선 초기의 우리 나라 여성들은 그런 대로 행복했다. 평퍼짐한 치마 속으로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가 강화되면서부터는 조선사에 길이 회자되는 여성 잔혹사가 있었으니,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투기로 하여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다는 이유로 연산군을 낳은 윤비를 폐위시키고 끝내는 사약을 내려 처형한 것⁹⁾이 그것이다. 서양의 경우, 그 유명한 네델란드의 무희, 마타하리(Matahari, 1876~1917)¹⁰⁾가 있다. 한 번 이혼한 경험도 있는 그녀는, 정치적 음모에 희생양으로 이용되어 못남성들과의 매춘에 의해서 놀

8)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著 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문예출판사, p.113

9) 왕후는 성종6년(1475)에 중국의 『女四書』를 본떠, 여자들의 행실의 규범을 마련하고자 『內訓』을 집필하였다.

10) 1876년, 네델란드 레바르덴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장교와 결혼하여 남편 근무지인 인도네시아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지냈으나 이혼하고 돈 한푼 없이 유럽으로 돌아와 『먹고살기 위해』 스트립댄서로 나서 이름을 날렸다. 1917년 이중 간첩 혐의로 프랑스군에 잡혀 총살됨.

아나지고, 결국에는 스파이의 혐의마저 뒤집어쓰고 처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제를 정통으로 한 사회에서의 남성의 여성 억압에의 사례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통점은 남성들은 스스로 약해져 있다고 생각될 때, 여성 억압이라던가 그와 유사한 투쟁수단을 취함으로써 그 열등감을 없애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이 개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규정하고 도전하는 의미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가부장이론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남성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창출과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당연히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남성 스스로는 부정하는 이 남성파시즘적 가부장제에 대항하여 이와 같은 부권제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페미니즘인 것이다. 남성에 의한 부당한 억압, 남근 숭배의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의 성의 차별 등에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여성도 남성에게 대응할만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 요구에 부응하여 싹튼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며, 그 사상과 걸맞게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성해방운동이었던 것이다. 일엽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글쓰기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생물적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성애를 주장하고 실천한 선구적 여성해방운동 작가이었다.

Ⅲ. 김일엽의 남성편력과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성

선구자적 여성해방운동 작가, 일엽에게도, 총체적 비전으로서의 그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파헤쳐보면, 다수의 좌뇌적 남성들이 그 주위를 싸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있음으로 하여 이 여성작가의 여성해방에의 의지도 키워지고 그럼으로써 또한 여태껏의 ‘낙인된’ 여성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해방적”여성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함에도 앞장 설 수 있었다. 말하자면 직접적인 삶에서의 남성 편력과 함께, 또는 간

접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부장제의 부당함을 고발 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성”¹¹⁾ 을 보여준 것이었다.

일엽의 원명은 김원주(金元周)이다. 일엽(一葉)이란 호는 한국의 소설 작가, 이광수가 김원주의 도쿄 유학시절, 한국의 히구치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가 되라고 붙여준 펜네임으로, 히구치나쓰의 호가 일엽의 일본 발음인 이치요인 것이다.

히구치이치요는 일본 최초의 여류 직업 소설가로서, 과년한 딸이 시집 가지 않으면 그 부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여성교육이 엄격했던 가부장 제하의 가족 국가 형태를 취했던 메이지(明治)천황 시대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제도에 항거하며 어머니, 여동생의 여자만 셋인 가정의 여가장으로서 스물 네 해의 짧은 생을 살다갔다. 그녀의 길지도 많지도 않은 삶과 21편의 단편소설은 그녀가 죽고 난 뒤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많은 문인들에게 잊히지 않고 회자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어 교과서 부교재에는 그녀의 대표적 단편인 『키재기』(たけくらべ)의 일부가 실려 있을 정도이다. 일본 정부는 그녀를 기려, 올해(2004년)부터 발행되는 5천엔권 새 지폐에 그녀의 초상을 등장인물로 내놓고 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인물로서는 두 번째가 된다. 히구치이치요가 폐결핵으로 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인 1896년에 한국 최초의 여류 시인 김일엽이 한국땅(평안남도 용강군 삼화면 덕동리)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치요(一葉)라는 호의 유래는 6세기에 남인도의 왕자, 달마대사(Bodhi-Dharma:菩提達磨)가 “한 잎의 갈대(蘆:아시)를 배로 삼아(一葉片舟)”중국을 건너간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선종(禪宗)을 퍼뜨린 달마(達磨)는 잘생기고 유순해 보이는 본디 얼굴을 감추고 씩씩하게 보이려고 추남처럼 분장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본떠 만든 인형이 얼굴 외의 부분을 붉게 칠한, 다리(足)가 없는 오뎅이이며, 일본 속어로 매춘부라는 뜻도 된다. “아시”는 오사카(大阪)의 방언으로 돈(錢)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시(蘆)를 타고 항해한 달마는 아시(足)가 없는 오뎅이(達磨)로도, 아시(錢)가 없는 매춘부(達磨)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두 일

11) 여기에서의 □□새로운 여성성□□은 엘렌 썬의 새로운 여성성과는 관계없음.

엽의 글쓰기에는 이와 같은 문학에서의 낯설게 하기에 해당하는 말장난—한마디로 두 개의 뜻을 나타내는 엇걸기 수사법—이 자주 등장한다. 하여, 두 일엽은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그 깨달음을 구하고, 중국에는 남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업을 달성한 점에서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엽이라는 호에서 오는 암시는 가히 일엽의 생애와 작품세계에서도 똑같이 운명적인 테마로 되고 있다. 하여, 가부장제하의 남성 위주의 윤리에 항거하고 그 부당함을 폭로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여성성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일엽—그러나 끝내는 쓸쓸한 산사에서 홀로 서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뇌적 사고의 이 여성 작가의 여성성은 무엇이었나? 그녀의 남성 편력과 대표적 글쓰기 속에서 고찰해본다.

일엽의 첫 번째 남성은, 미국에서 자연 과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내정된, 이노익이라는 40세 된 신사이었다. 고아로서 이화전문을 막 졸업하고 하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일엽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소개한 것이다. 일엽의 나이 22세 때의 일로서, 계모 밑에서 자랄 때 처녀로 파혼한 경험도 있는 일엽은 호기심 반,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반의 심정이 되어 그의 청혼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신혼 첫날밤 방 한구석에 세워 둔 고무 다리를 보고는 도저히 그를 사랑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결혼 전에 그가 불구자임을 이미 알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 의족은 그와의 결혼 생활 4년간(1918~1921)을 늘 따라다니며 그녀의 여성성을 억압하였다. 다리 한 쪽이 불구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이노익은 어린 일엽에게 뜻대로 일본 유학도 시켜주고, 이화 학당 시절 이문회(以文會)에서 활동하기도 하는 등 글재주가 있는 그녀를 위하여 1920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인 『신 여자』를 창간하는 데에도 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본처가 한국에 있는 시인, 노월 임장화와의 간통 사건으로 결국 이혼하게 된다. 애정 없는 결혼생활에 환멸을 느껴 헤어지려 몸부림쳤으나 세상 평판을 의식하여 쉬이 놓아주지 않았던, 좌뇌적 과시즘 성향이 강한 이노익에 대한 증오와 갈등은 결혼 생활 중에 『신여

자』에 발표한 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상제여! 내가 악하거든 나를 벌하라. 너는 전능하니라. 누가 감히
너에게 적 하리요. 만일 내가 선하거든 혹은 벌하고, 혹은 사랑하
라. 다만 너의 뜻에 맡기리라.

루소는 “여성의 욕망이란 고삐가 풀리면 무정부적이며 파괴적인 폭력으로 된다는 가정을 기정 사실화”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가족을 배반하는 것은 국가를 배반하는 것만큼이나 체제전복적인 일이었다. 『에밀』(Emile)에서 쓰고 있는 간통은 반역이라는 말뜻과 그대로 통하는 것이다.¹²⁾ 그것에 항거한 일엽의 외침은 마치나 애정 없는 남성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성적으로 억압 받아왔던 여인의, 탈식민주의자와도 같은 냉소적이고도 자포자기적인 통곡인 셈이었다. 필리스 체슬러는 그녀의 책, 『여성과 광기』에서 “정신과 육체가 분열된 형태인 처녀성은 출산, 지혜, 사냥시의 용맹성, 모성적인 동정심 등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이 지불한 대가이다. 물론 이성애적인 강간을 통한 탈처녀화는 여성의 정신과 육체의 연속성을 분열시켜 미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필리스 체슬러, p.100)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엽은 그 때 이미 미쳐 있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일엽의 새로운 여성성이었다. 자괴감에 머물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를 극복해 가는 모습이 또한 오뚝이 달마대사의 일엽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투쟁적이면서도 정신세계의 높은 경지로 이끄는— 하여 다소 이해하기 복잡한, 수명의 남성과의 육체관계를 경험하고서도 결코 여성의 위치에만은 만족할 수 없었던— 사회 문화적 성차마저 초월하여 시대를 앞서 가고자 한 양성구유의, 독특하고 적극적인 여성해방운동가로서의 발언이 『신 여자』에서 계속되었다.

세상의 남자들아, 여성을 약자라, 무지한 자라 업수히 여기지 말지
어다. 오늘날의 여성은 약자도 무지자도 아니니라! 세상의 여성들

12) 코라 카플란 씀, 판도라의 상자,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0 p.146

아, 남성을 강자라, 지자라 겁내지 말지어다. 오늘날 남성은 강자
도 지자도 아니니라. 남성은 타협하라! 여자는 자각하라!

즉, 그녀는 엘리트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아포리즘 적인 글로써 조선의
여자들을 깨우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불지어다. 우리 조선은 인구가 2천만이라. 그러하나 사람으로 활동
함은 그 반수를 점한 남자요, 그 나머지 반수의 여자는 모두 남자
의 노예로 구사되나니, 슬프도다, 조선의 여자여!

이상과 같은 글쓰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녀에게서는 마치나
남성을 적으로 알고 투쟁하는 열렬한 여성해방운동가로서의 여투사같은
모습이 느껴진다. 그러한 그녀의 실제 삶도 전설 속의 아마존네스와 같이
용감하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이의 신화를 연상시킬 만큼 슬기롭다. “투
쟁하는 계급으로서의 여성(women)과 신화로서의 여자(woman)”(한국
여성연구회, p.186)가 공존하는 복합성이다. 전자는 실재하나, 후자는 오
직 신화일 따름이다. 경제적 빈곤 앞에서 일엽은 무력했다. 필리스 체슬
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이 버림받거나 이혼할 때 그들은 독
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3가지 직접적인 소득의 출처가 있을 뿐이다. 남
편으로부터 지원을 제외한다면 보장된 미래가 없는 저임금의 직장, 불법
적인 매춘, 혹은 사회복지기금에 의존하는 것이 그 3가지이다.(필리스 체
슬러, p.484)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¹³⁾은 『여성과 경제』
(Women and Economics, 1898)라는 책 속에서 “인간은 먹기 위해서 암
컷이 수컷에 의존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성(性)관계가 또한 경제적 관계
이기도 한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하나의 성 전체가 다른 하나의 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며, 여성의 일차적
에너지는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오도하고, 뿐만 아니라,

13) 길먼의 『가정』은 페미니스트 사상의 첫 번째 물결(first wave) 기간 동안에 나온
저작 중에서 가사영역에 관해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이론서로 남아 있다. 조세핀
도노번 지음, 전계서, p.98

“여성의 경제적 노동은 성적매력이라는 능력을 통해서이다. 결혼은 매춘이다.”라고 극단적인 사회주의적 다위니즘의 가설에 입각해서 주장(조세핀 도노번, p.90)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해진 일엽에게 시인 전영택의 누이동생인 유덕이 좋아하는 유학생으로서 자유 연애 지상 주의자인 방인근이 유혹을 해왔다. 여성들이 젊고 매력적인 동안에는 여러 측면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필리스 체슬러, p.222) 아직 젊은 일엽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무절제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탐욕스러운 일엽을, 하여 평판에 있어서 이미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있는 일엽을 이해해주는 문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나, 연애에 있어서는 대범했던 일엽도 차마 친구의 애인이며 시골의 부유한 상속자이었던 그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체적 욕망이란 원래 조소거리이며 기만적인 것이다. 땅이 꺼지는 듯한 환희를 추구하면서 침몰은 원치 않는 것이 에로티즘”¹⁴⁾임을..... 과도한 에로티즘에 책임감을 느꼈는지 일엽은 일본인 오타 세조(太田清藏)와 연애를 하여 아들(김태진)을 낳았다.(1922) 모성이 여성 억압의 제일 요인이라고 하였던가, 일엽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들과 곧 헤어진 것이었다. 하여 이제는 신비체험으로 들어갔다. 신비체험은 성체험을 좌우하는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체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 칠 때 얻어진다고 한다.(조르주 바타이유, p.278) 그것은 육체의 에로티즘이나, 심정의 에로티즘과는 달리 의지에 좌우된다.(조르주 바타이유, p.23) 과도한 허영심 뒤에는 반드시 성적 억압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노익에게서 일찌감치 경험한 그녀로서는 현명하게 물질적 욕망을 포기하는 지혜를 익히 지니고 있었다. 그 즈음의 일엽에게서는 돈에 대한 집착도 차츰 멀어져갔다. 후에『오십 전화』라는 단편도 발표하였지만, 그녀의 달관된 모습은 훗날 본인의 책, 『청춘을 불사르고』¹⁵⁾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 어느 날은 원고료 받은 것을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생전에 처음

14)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서울 : 민음사, 2001, p.273

15) 김일엽, 青春을 불사르고, 서울 : 중앙출판공사, 1998, p.25

많은 돈을 뭉쳐 가지고 히라다(平田), 미쓰코시(三越)등 큰 상점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헤매 다니다가 (중략)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봐도 결국 돈의 갈증만 심해질 것이라 깨닫고 창자를 위로할 만한 음식과 한서(寒暑)를 피할 만한 옷이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난의 고(苦)도 느끼지 않게 되었나이다.

일엽보다 앞서 간 일본의 처녀작가 히구치이치요가 경제적 궁핍에 매여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물질적 집착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일엽으로서는 현명한 체념이었다.

그녀는 아현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그녀의 여성성은 그녀로 하여금 직장생활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다시 네 번째 남성으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인 국기열과 신접살림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전라도의 전통 있는 명문 출신으로 동경 유학을 마치고 송진우 등과 함께 동아일보 창간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엽의 글쓰기는 그칠 줄 몰랐다. 결혼 생활이 한창 무르익어 갈 즈음, 조선일보에『나의 정조관』이란 글을 발표하여(1927년 1월 8일) 당시의 세인들을 경악케 하였던 것이다.

…재래의 정조관으로 말하자면, 정조를 물질시하여 일단 과거를 가진 여자의 사랑은 신선한 맛이 없는 진부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중략) 과거에 몇 사람의 이성관과 연애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 생활을 창조할 만한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진 남녀로서, 과거를 일체 자기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새로운 상대자에게 바칠 수가 있다면 그 남녀야말로 이지러지지 않은 정조를 가진 남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오직 연애지상주의에의 “열락”(悅樂)¹⁶⁾에 빠져든 듯한 일엽의 새로운 여성성이었다. 이 일을 기화

16) □□열락□□이라 함은 땃가를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탐닉함을 뜻한다. 앤 로잘린드 존즈, 몸으로 글쓰기,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전계서, P.193

로, 결국 국기열도 주위의 압력에 밀려 일엽과의 이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십계명도 익히 외우고 있었을 일엽은, 이제 다시 교회를 찾아서 피곤한 영혼을 맡길 수는 없었다. 기독교 신화란 여성을 어머니 아니면 창녀라는 이분법에 토대 하여 강제로 분열시키는 데 대한 반발 때문일까?. 어쩌면 그보다도 여성의 독립과 자유를 구속하는 성경의 말씀에 일찍이 항거하여, 여성해방론자로서의 길을 택했던 일엽이 아니던가? 그런 그녀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 무한한 소비를 행하다 보면, 소멸 충동에 이른다고 하였다. “중이 되어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되뇌게 된 것이다. 그런 와중에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백박사의 불교에 관한 강연을 듣고는, 그 험심한 용모며, 인품에 흠뻑 빠져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온 세상을 비취 주는 스크린”(조르주 바타이유, p.21)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일엽이 평생을 기다려온 백마를 탄 신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날로 더해 가는 연모의 정도 뿌리치고, 그는 산으로 도망치듯 일엽의 곁을 떠났다. 그에게 있어서 일엽의 존재는 “계절스럽게 색을 탐내는 여성이나 냉혹하고 잔인한 요부, 흡혈귀처럼 남성의 정액과 피를 빨아 생명을 이어가는 사악한 여자”팜프 과탈이었을까? 그에 대한 실연과 사모의 정은 일엽의 글쓰기를 더욱 성숙하게 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살아서 이 몸도/ 죽어서 이 혼
까지도/ 그만 다 바치고 싶어질까요¹⁷⁾

또한 『작사랑』에서는

못 안아 볼 님이라서/ 가슴 홀로 울고 있고/ 못 미칠 두 팔이라/
빈 가슴만 비벼델 제 (중략) 작사랑의 그 열도는/ 악마의 열병 같
아/ 도를 넘는 고열이/ 이 몸을 다 사르고

17) 김일엽 저, 이기홍 펴냄,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서울 : 도서출판 문화사랑, 1997, p.14

와 같이, 사랑의 패배를 인정하는 곳에 일엽의 우뇌적 사고로서의 여성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백박사와 헤어진 후 일엽의 불교 공부에의 학습 의욕은 날로 더해갔다. 급기야는 재가승인 하운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서 하나라도 불교 교리를 더 공부하고자 곧바로 결혼 생활에 들어갔다. 완숙해 가는 불심과 더불어 그녀의 불기도 점점 그 깊이를 더해 갔다. 그러나, 일엽의 우뇌적이면서도 다소 분열적으로 보이는 여성성은 여기에서도 달콤한 결혼 생활에 안주하게 하지는 않았다.

백 호 천 호 만만 호로/ 미진 겁에 벗으오사/ 아득이는 중생들의/
봉화가 피오소서/ 더구나 그들의 어두운 눈을/ 어느 누가 보리까

라는 이 글이 신문에 발표되고 난 즈음, 남편 하운실은 공연히 일엽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지나침이란 폭력이 이성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조르주 바타이유, p.44)임을 일찍이 터득한 일엽은 드디어 입산을 결심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랄까, 스스로 “생물학적인 집”(필리스 체슬러, p.453)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혁명적 선택이었던 것이었다. 1928년 일엽의 나이 33세 때의 일이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만공대선사 밑에서 문하생으로 수도한 후, 수덕사의 여승 방인 견성암에서 불법을 설파하며 여생을 마치게 되는 일엽... 글 또한 망상의 근원이라며 불립문자를 내세우는 스승의 뜻에 따라 글쓰기도 그만 두었다. 그러나 18년 동안이나 읽지도 쓰지도 않으며 오직 견성성불(見性成佛)하려던 일엽의 글쓰기에의 욕망은 또다시 끓어올랐다.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는 하나의 렌즈로서, 그리고 하나의 부분적 전략으로서 활력을 지니고 있는 것”(앤 로잘린드 존즈,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p.188)이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 『청춘을 불사르고』,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와 같은 책을 통하여, 이제는 높은 정토의 세계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자신의 모습을 사바세계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언어를 통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일엽

의 진실된 여성성이었다. “정신은 일체 존재의 뿌리임”(『청춘을 불사르고』, p.212)을…… 그를 통해, 좌뇌적 남성파시즘에 대항하여 투쟁해온 과거의 자신이 정당하였음을 재확인하고 싶었다.

가냘픈 한 잎새가/ 폭포 중에 떨어져서/ 으깨고 조각나도/ 다만/
그 냇일랑/ 대해(大海)까지 이르고져

‘한 잎’이라는 제목의 이 시에다가 일엽은 자신의 생애와 문학활동의 의의를 부여하였다. 또한

누구는 ‘예술은 길어도 인생은 짧다’고 말하였지만 나는 ‘인생이
길기 때문에 예술은 멀하지 않는다’고 우주적인 바른 말로 외치게
된 것이다.

라는 경구 적인 발언과도 같이, 수많은 ‘범어들과 수행 과정의 오묘한
경지들을 근대적 문학 형태를 빌린 선시(禪詩)나 오도송(悟道頌) 형태로’
합리화해나갔다.(『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pp.5~6) 그러면
서도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는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중략) 나의 노래는 (중략) 서정시도 아니
외다. (중략) 교훈의 글귀도 아니외다. (중략) 다만 유정 무정이
일용하고 있는 백천삼매(百千三昧)의 묘구(妙句) 그대로 읊조릴
뿐이외다.

의, 몰아(沒我) 내지는 4차원적 탈아(脫我)의 경지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녀가 나중에 술회했듯이, 그녀가 입산 한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젊은 전사
들은 전면 공격하고 늙은 전사들은 기다린다고 하지 않던가? “생의 절대
희구는 평안”임을 일찍이 간파한 일엽이 택한 사바세계로부터의 코페르
니쿠스적 전회는 그녀의 만년청춘을 누리기 위한 역설적인 방책이었다.

첫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인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이 말했듯이 “여성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천사 아니면 악마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때문에 여성의 진정한 구원은 이 지상에 굳건히 발붙이는 것, 말하자면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필리스 체슬러, p.375)이다. 과연 일엽의 현명한 지성은 그녀로하여금 팜프 파탈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세속인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익히 깨닫게 하여 주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언제나 우연한 조건에 좌우되는 듯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융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열정으로 하여 고통의 가마에 빠져들기는 하였을”(조르쥬 바타이유, p.20) 망정, 그녀의 에로티즘은 죽음으로 파고드는 삶(조르쥬 바타이유, p.9)과 같은 그런 류의 것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평생토록 에로티즘에의 암시는 지우지 않았다. 저서 『청춘을 불사르고』를 집필한 이유로 “영원의 청춘! 길이길이 싱싱하게 되어 시들어지지 않는 청춘을 중독하는 불법을 얻으려고 입산한 것이다”(p.15)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pp.6~7).에서는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와서 처음 한 공부는 ‘살고 보자’는 것이다. 자기 본래의 만능 적인 행동력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와 같이 삶에 대한 솔직하고 긍정적인 술회를 통해, 과연 삶확신적인 우뇌성향의 일엽의 여성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다.

필리스 체슬러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피하며 심지어 자기 보존마저 회피한다. 심리적으로 자기 보존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들에게 금지하는 바로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은 패배하도록 훈련받으며 이상적인 남성은 승리하도록 훈련받는다. 심리적으로 여성은 죽도록 훈련받으며, 남성은 생존하도록 훈련받는다. 여성들은 희생제단에 기꺼이 올라가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이다. (필리스 체슬러, p.446) 일엽은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여성으로서의

한창일 나이에 산사의 희생제단에 재빨리 올라섬으로써, “힘에의 의지”를 주창한 니체의 후예—좌뇌적 파시즘 성향이 강한 남성들에게도 마녀로 찍히지 않고 정상적인 여성 내지는 여자로 인정받으며, 불자들의 존경 속에서 행복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글쓰기로 하여 “잊혀지지 않는 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IV. 결 언

이렇게 보건대, 일엽은 그녀 스스로는

남들은 달이 아름답다, 봄가을 시절이 좋다 하지만, 달이나 시절은
설운 사람에게는 설운 감정을 돋우어 주는 점이 없지 않지만, (중
략) 꽃이라면 남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본 적은 없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작시 『꽃은 고와』를 통하여

꽃이야/ 꽃이어 늘/ 무슨 꽃은/ 꽃 아니라// 민들레 머리 꽃고/
도화 이화 손에 들고/ 장미발 다 지나서/ 모란꽃을 찾으리

라며 이미 향기를 다 잃은 자기 같은 꽃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지만, 반평생을 꽃같은 삶과는 거리가 먼, 여승으로서의 생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치지 않는 글쓰기로 하여 끝내는 남성 파시즘에 의한 음모에서 벗어나, 승리의 개선가를 남긴, 위대한 선구적 여성해방 문학가이었다.

그녀의 여성성은 여자이기 때문에야말로 그를 자기 자신을 지켜 주는 마나(mana)¹⁸⁾의 무기로 역이용하여, 예를 들면, 애정생활에 있어서도

18) 말레이시아 군도에서는 ‘마나(mana)’라는 초자연적인 힘이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마나’가 깃들여 있는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집이나 밭

정절이라는 것은 순일한 정신으로 대상을 대하는데 있다. 다 바치면 바친 척도대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개체로는 교체되더라도 정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피고름을 주무르던 손이건 티끌 하나 안 만진 손이건, 손은 손일 뿐이지 거기에 정(淨), 부정(不淨)이 묻어 있는가?

라는 과감하고도 좁은 뻘뻘스럽기 조차한, 직선적인 언술에서와 같이, 솔직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써 남녀 평등을 숭선 실천하였고, 하여, 자기 내부에서 불타오르는 투쟁적 프락시스의 여력을, 가시나무 새와 같이 찢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멈출 수 없었던 그녀만의 글쓰기를 통하여 필경에는 높은 정신적 경지에까지 이끌어 올리고자 한, 그러나 전체 사회를 보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만 몰두해 있음으로 하여, 끝내는 세상을 등진 세월을 보내야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했던, 유토피아적 여성해방운동가로서의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参考文献〉

※ 단행본

- 김일엽(1998), 청춘을 불사르고, 서울 : 중앙출판공사
- 김일엽(1997),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서울 : 도서출판 문화사랑
- N 프라이(1986)/ 임철규 역, 批評의 解剖, 서울 : 한길사
- 리처드 에번스 지음(1997), 정현백 외 옮김, 페미니스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이규헌 해설(1998), 독립운동, 서울:서문당
- 조세핀 도노번 지음(1997), 김익두 외 옮김, 페미니즘 이론, 서울 : 문예출판사

의 한 구석에 놓아둠으로써 액운으로부터 자신과 집안을 보호하고 풍요한 성공을 보장받는다. 韓相福 외, 文化人類學概論, 서울 : 서울大學出版部, 1986, p.274

- 조르주 바타이유 저(2001),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서울 : 민음사
-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著(1997), 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문예출판
- 필리스 체슬러 지음(2000) 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서울 : 여성신문사
- 韓相福 외(1986), 文化人類學概論, 서울 : 서울大學出版部
- 한운사 저(1983), 영원한 삶을 찾아 〈金一葉〉, 빛을 남긴 한국의 여인상, 서울 : 明書苑
- 織田元子(1990), フェミニズム批評, 東京 : 勁草書房
- Maggie Humm(1986, 1994)著, 木本喜美子・高橋 準 監譯(1999), フェミニズム理論辭典, 東京:明石書店

※ 번역 서

-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1990),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서울 : 창작과 비평사

Study on Kim Il Yeop's Femininity

Milim Noh

Kim Il Yeop was the first poetess in Korea. It was a coincidence that she was born in the same year of 1896, when the first lady novelist of Japan, Higuchiichiyō died. The pen name of Il Yeop came from the name of Ichiyo, which was Il Yeop's Japanese pronunciation.

The time Kim Il Yeop was working was the era of the last Joseon when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occupied Korea. It also was the time when the male Fascism was overflowing. Kim Il Yeop exposed and resisted the contradiction of the phallicism by the patriarchal system that swept over the world. In short, she was a feminist writer who preceded the era leading the movement of women's liberation.

In order to examine her new femininit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femininity analyzed in the feminism and the femininity prescribed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are examined and Il Yeop's new femininity is suggested through her wandering about menfolk and her writing. In fact, through several times of marriage with several men, Il Yeop made the world astonish with her bold writing by insisting the equal rights for both sexes. Il Yeop's femininity is that of utopia, frank, straightforward and as an activist of women's liberation.